

아니다.

六點의 破片에서 얻은 가장 큰 收獲은 字徑 四寸 篆書體의 題名인 「興德」이라 임혀진다. 이 王陵이 新羅第四十二代 興德王의 그것이었음은 오랜 옛날부터 누구나 그렇게 일러 오던 터이다. 또 遺事 王曆篇에도 「陵在安康北 比火壤 與妃昌花合葬」이라 해서 安康方面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新羅統一期 王陵의 主人이 누구나가를 指摘하되 疑心을 들餘地를 없게 한다. 다만 慶州附近에 散在해 있는 다른 모든 王陵들이 그러하듯이 單只 推定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唯一한 例外라는 것이 陵碑題石이 發見되므로써 不動의 證明을 갖추게 된 太宗武烈 王陵 하나였을진대 이제 興德王陵 역시 그 題名이 發見되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完全한 同一人 證明을 얻게 되었음을 筆者로서 기쁘게 생각하 는 바이다.

끝으로 崔南柱氏는 往年에 이 興德王陵에서 五·六片되는 陵碑斷石을 주어 慶州博物館에 寄托한 일이 있다 한다. 末松保和教授 역시 그의 近著(新羅史의 諸問題)에 이 事實을 記載하되 一九三七年의 일로 실어 있다.

아울러 參考한다는 것이 荏苒 未盡한 채로 成稿를 재촉 받으며 한층 아쉬움을 느낀다.

### 灘隱筆 問月圖

#### 全 鑿 弼

李朝前期 畫人中 灘隱 李靈은 畫竹의 名人으로 그 이름이 天下에 떨쳤거니와 그의 品이고 格 높은 作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敬虔한 마음울 일으키게 한다.

筆者는 灘隱의 墨竹圖를 몹시 좋아하고 그 中에서도 風竹 雨竹 雪竹 등을 좋아하여 機會있는 대로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많은 墨竹圖를 蒐集

하였는데 灘隱의 좋은 作品을 對할 때마다 「이분이 대를 이다지 잘 그렸으니 山水圖나 人物畫같은 그림도 잘 그리지 아니하였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었다. 「槿域書畫徵」에

李靈 字仲變 號灘隱 世宗玄孫 益州君 枝子 中宗三十六年辛丑生 授石陽正 後陞君 善畫竹 且能詩又善書(震彙續考)

灘隱善墨竹又能蘭梅 上甚賞之 每畫一簇 恩資便蕃(識小錄)

題石陽正仲變水墨圖二幅曰 青山倚夏空 風氣浮群木 鬱々歲寒姿 故宜幽

澗谷

怡對群檀何曾秋意足 可憐一葉無自在 千尋木(簡易堂集)

等の 記錄으로 보면 詩를 잘하고 畫에 能하며 梅와 蘭을 잘 그렸고 水墨山水圖를 그린 듯한데, 筆者는 多幸히 그 後에 한두 번 灘隱의 梅花와 蘭을 그린 作品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灘隱의 山水畫나 人物圖는 보았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只今으로부터 二十六·七年前 偶然히 어느 骨董商에서 珍貴한 畫帖 한 卷을 入手하였는데 그 中에서 灘隱의 人物圖一幅을 發見하였으니 그 때에 기뻐던 생각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 古畫帖은 李朝英祖時 古書畫의 大收藏家로 이름이 높던 石農 金光國이 自手로 蒐集編纂한 것으로 幅數는 그다지 大하지 못하나 알뜰히 모은 稀貴한 畫帖이었다.

石農 金光國도 灘隱의 人物圖를 처음보고 몹시 珍貴하게 생각하였던 모양으로 題하여 曰「問月圖」라 하고 아래와 같은 題贊을 썼다.

灘隱梅竹蘭蕙在在有之至於山水人物餘(未)當見之今得其所作望月圖蓋以寫竹之筆「法草々爲之極有疎散之韻昔荆蠻民自題其」竹曰聊以寫吾胸中之逸氣灘隱之意其亦「類是耶

金光國

이 問月圖는 그리 크지 않은 畫帖 中의 한 幅으로 橫一六cm 堅二四cm의 小品이나 石農 金光國의 贊과 같이 疎散之韻이 畫幅에 高요히 흐르고 있는 듯하다.



湖月圖 金文國詩 茅宗敬書  
 此畫見於金文國詩中，其詩云：湖月圖，金文國詩，茅宗敬書。此畫之筆法，法華，為二松有疎放之趣，若別畫民自遊畫，昨日聊以自喜，中二之氣，疎淡之美，若若，極是神。

스스로 많은 差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이 問月圖는 紙地淡彩畫로 衣服에는 淡靑을, 顔面과 手足에는 淡紅을, 口에는 若干 紅을 淡紅色을 設彩하였다.

以上으로 筆者로서는 처음 보는 灘隱 人物圖의 紹介를 끝내거나와 日後 다시 어디서든지 灘隱의 山水圖나 人物圖같은 作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通德郎 權齊彥의 誌石

洪 以 燮

「通德郎 安東權公墓誌文」은 韓國近世思想史上 한 때의 心理的인 面을 알리는 興趣 있는 것이다.

이 誌石은 黑石(長三一·五cm 橫二二三cm 厚一·三cm)에 十二行 各行二十字의 雅趣 있는 行書體로 刻字되어 있다.

權齊彥은 英祖戊辰(西紀一七四八) 「巴陵孔巖里」(現陵谷陽川一帶)에 出生하였으며 黃德吉의 挽辭(下廬集卷之一挽權汝周齊彥 誌文에는 舟다)가 癸亥(純祖三年 一八〇三)作으로 됨을 보아 그 生卒을 짐작할 수 있다. 첫 장 한 장으로는 推得할 바가 없으나 黃德吉과의 同鄉 交友關係는 黃德吉이 權齊彥의 挽辭를 制作했을 뿐 아니라 「巴陵後浦」(下廬集卷之十九)에 실렸던 바로 알 수 있다. 誌文 第一張 裏面에,



：及 學生公歿，遂不赴舉，近有一種沉溺邪書者，府君嘗戒不肖等，曰古之異端，高明爲患，今之異端，愚賊胥溺，固可嚴斥之，然斥之失其正，是猶繼風而止燎也

라 한데서 十九世紀後半 正祖 一代를